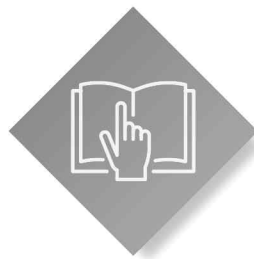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2.19.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유럽연합 이사회, 한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문 발표 ... 한국 분담금 2,250만 유로(2.13)
- ② 집행위, 다년재정프레임워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발표(2.12)
- ③ EU, 인공지능 혁신 강화에 500억 유로 투자 계획(2.13)
- ④ 집행위, 공공 과학 참여와 연구 경력 강화에 2,900만 유로(2.18)
- ⑤ 집행위, 과학 외교를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발표(2.13)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MSCA COFUND 2024, 27개 박사 과정 및 포닥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1억 480만 유로(2.14)
- ② 집행위, 유럽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인프라 전략 발표(2.14)
- ③ 직장 내 로봇 및 AI의 활용에 대한 유럽의 긍정적 인식(2.13)
- ④ EU 공동연구센터(JRC), 유럽의 미래를 위한 221개의 신기술 제시(2.17)
- ⑤ MSCA PF 2024, 지원자 2,939명에 우수성 인증(Seal of Excellence) 수여(2.17)
- ⑥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MSCA 우수성 인증 제도 개시(2.17)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EU 연구 기관 내 젠더 기반 폭력 문제 해결
- ② HaDEA, MWC 2025에서 성공 사례 제시 및 펀딩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유럽연합 이사회, 한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문 발표 ... 한국 분담금 2,250만 유로(2.13)

※ [한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서](#)

※ [이사회 결정\(서명 승인\)](#), [이사회 결정\(협정 결론\)](#)

- 지난 2월 11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한국의 분담금을 포함한 협약의 법정 문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의 남은 3년 동안 분담금으로 2,250만 유로를 납부할 예정
 - 유럽연합과 한국 간에 체결된 협정문은 한국이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규정을 명시
 - 분담금은 운영 기여금(operational contribution)과 참가비(participation fee)로 구성되며, 한국의 운영 기여금은 2025년 600만 유로, 2026년 750만 유로, 2027년 900만 유로이고, 참여비는 이 금액의 2.5%, 3%, 4%에 해당(이후 각국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운영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정문은 또한 한국과 EU 양측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방형 과학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는 등 비재정적 조건도 명시하고 있음
 - 양측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설립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한국의 참여 성과를 평가하며, 협력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
 - '24년 초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대한 EU와의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공식 서명 절차가 남았으나, 한국은 2025년부터 임시 합의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horizon-2020/2025/2/South-Korea-to-contribute--22.5m-to-Horizon-Europe.html>

2 집행위, 다년재정프레임워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발표(2.1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에 관한 비전을 담은 커뮤니케이션을 발표. 차기 MFF는 EU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새로운 도전과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구조를 재검토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집행위는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하며 차기 MFF 설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및 예산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EU의 장기 예산을 변화하는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
 - EU 예산은 시민, 농민, 연구자, 기업,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유럽 전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며, NextGenerationEU와 함께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디지털 및 친환경 미래에 투자
- 2028년 시작될 차기 장기 예산은 EU의 증가하는 기대를 충족하고 NextGenerationEU 차입금 상환 및 회원국의 안정적 재정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자체 재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EU 활동에 대한 새로운 과제와 기대에 따라 EU 예산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며 경쟁력 있는 유럽을 위한 간소하고 유연하며 목표 지향적인 예산 개혁이 필요
 - 새로운 접근 방식은 국가별 주요 개혁 및 투자 계획을 포함해야 하고, 유럽 경쟁력 기금은 전략적 부문과 핵심 기술 지원을 위한 투자 역량을 구축해야 함
 - 대외 활동 자금 개편으로 외교 정책과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법치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 현대화된 수입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필요
- 집행위는 커뮤니케이션 발표와 함께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의견 수렴과 패널을 개시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차기 장기 예산이 EU의 공통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유럽인이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
 - 집행위는 시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향후 EU 예산과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며(의견 수렴은 12주 동안 진행됨), 150명의 시민 패널이 차기 EU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
 - 세라핀 집행위원은 Tour d'Europe을 통해 회원국, 지역 이해관계자 및 EU 예산 수혜자와의 대화를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섬
 - 집행위는 2025년 7월에 차기 MFF 공식 제안서를 발표하고 2028년 1월 시행할 예정
- ※ MFF는 주요 활동 부문에 대한 최대 예산을 설정하며,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채택됨. 현재 MFF(2021~2027) 총 지출액은 1조 2,110억 유로이며, 이는 팬데믹 대응 경제 회복 기금인 NextGenerationEU(8,070억 유로)를 포함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486

- **집행위는 커뮤니케이션 개요에서 '현상 유지(status quo)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명시**
 - MFF의 핵심은 연구혁신을 포함하여 EU 경쟁력에 중요한 전략적 부문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기금에 있고, 이 기금은 연구, 규모 확대, 산업 배치,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유럽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종합적인 구조를 가질 예정
- **현재 EU의 연구혁신 예산이 파편화되어 있으며, 혁신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 집행위는 혁신에 대한 EU의 지원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연구에서 개발, 배치까지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부족하다고 평가
 - 단편화는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현재 공공 지출이 획기적 혁신에 집중되지 않고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EU 기업은 2021년 기준 미국 기업보다 R&D에 2,700억 유로 덜 지출)
 - 집행위는 '진정한 정책 기반 예산'을 위해 프로그램과 EU 자금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유럽 연구 기관과 대학 연합은 기초연구와 혁신이 희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과 예산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

- 지난주 Science Business 컨퍼런스에서 엘리 유럽의원(MEP)은 FP10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르메트르 연구혁신총국장은 FP10에 별도 예산 배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Science Europe 사무총장 Borrell-Damián은 FP10이 경쟁력 기금에 포함될 경우 사회적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과학 탐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FP10 외의 연구혁신 분야에 대한 명확한 지원 계획을 요구
- 유럽대학연합 CESAER 사무총장 Björnholm은 FP10이 경쟁력 기금에 포함되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금 증액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수용 가능하다고 말함
- 그러나 Science Europe의 Borrell-Damián은 독립적인 연구혁신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이 다른 자금 조달 수단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연구중심대학협회 The Guild 사무총장 Palmowski는 현 연구 자금 상태 유지가 선택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럽이 연구 혁신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국가적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

○ EU는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 상환으로 인해 향후 예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자체 자원 도입이 필요

- 2028년부터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 상환액은 다음 예산 기간까지 연간 250~300억 유로 달할 것으로 예상(현재 예산의 약 20% 차지)
- 집행위는 문서에서 “유럽의 예산은 모든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자체 자원 도입 없이는 EU 예산이 목표에 부합할 수 없다고 명시
- 현재 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하는 ‘자체 자원’의 확대는 EU 정부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며 집행위는 새로운 옵션에 대한 작업 재개를 촉구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budget/research-faces-uncertain-future-eu-budget-shakeup
----	---

③ EU, 인공지능 혁신 강화에 500억 유로 투자 계획(2.13)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응용 지원에 5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하며 유럽의 인공지능 혁신을 “초강화(supercharge)”하겠다고 발표
 - 이 InvestAI 이니셔티브는 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 발표된 EU AI 챔피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 1,500억 유로 추가 투자와 함께 총 2,000억 유로를 동원할 계획
 - InvestAI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20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유럽 펀드를 조성하여 4개의 AI 기가팩토리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 시설에 현재 설립 중인 AI 팩토리보다 약 4배 많은 약 10만 개의 최첨단 AI 칩이 설치될 예정
 - 현재 EU 및 회원국은 연구자와 기업이 EU 슈퍼컴퓨터에 접근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하도록 지원하는 AI 팩토리 이니셔티브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폰데어라이엔은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AI 공공 투자”이며 민간 투자에서 10배 이상의 자금을 유치할 것을 전망
 - 집행위는 제네바의 CERN을 모델로 한 유럽 AI 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원을 모으기로 한 바 있으며, 폰데어라이엔은 InvestAI와 AI 기가팩토리를 CERN의 비전을 실현할 민간 파트너십이라고 설명
- 초기 EU 자금은 디지털 유럽, 호라이즌 유럽 등 기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회원국도 기여할 수 있음
 - 집행위는 성명에서 InvestAI가 다양한 위험 및 수익률 프로필을 가진 계층화된 펀드를 포함할 것을 밝힘
 - 초기 EU 자금은 디지털 유럽, 호라이즌 유럽, InvestEU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나올 예정이며, 회원국은 결속기금을 사용해 기여 가능
 - 민간 투자자들은 이 기금을 통해 AI 기술 기업과 AI를 적용하는 비즈니스, 에너지 및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

- 산업 협회 DigitalEurope 대변인은 “민간 자금에서 1,500억 유로, 공공 자금에서 500억 유로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럽은 더 큰 야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2028년 이후 다음 장기 예산에서 공공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AI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산업 및 제조 데이터 활용과 오픈소스 협력을 강조
 - 다른 전문가들은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미래세대센터(Centre for Future Generations)의 수석 연구원 Pataki는 중국은행이 향후 5년간 AI 개발에 최소 1조 위안(약 1,300억 유로) 배정하겠다는 계획과 비교하여 이는 유럽이 AI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며, AI 기가팩토리가 ‘AI를 위한 CERN’을 실현할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
 - 미국이 5,000억 달러 규모의 Stargate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중국 기업 DeepSeek가 비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한 모델을 출시하며 유럽은 대응 압박을 받음
 - 폰테어라이엔은 유럽의 과학 기술 역량을 활용하면서 주요 경제 부문에서 AI 채택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고, 또한 다양한 국가와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는 협력적 오픈소스 혁신을 강조
 - Pataki는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 유럽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제안
 - 이번 정상회의에서 EU는 투자 촉진보다는 AI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폰테어라이엔은 국가별 규정이 아닌 단일 규정을 제시하는 AI 법안을 옹호하는 한편 규제 완화 약속도 되풀이함
 - 유럽 스타트업 네트워크의 최고경영자 Parsons는 AI 법과 데이터 보호 규정(GDPR)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budget/eu-invest-eu50b-supercharge-innovation-artificial-intelligence
----	---

4 집행위, 공공 과학 참여와 연구 경력 강화에 2,900만 유로(2.18)

- 집행위원회는 WIDERA 프로그램을 통해 2,900만 유로로 공공 과학 참여와 연구 경력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의 WIDERA(참여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에 총 2,900만 유로를 투자할 것을 발표
 - 이 프로젝트들은 초기 경력 연구자 지원, 과학에 대한 대중의 참여 증진, 연구 결과의 사회적 및 경제적 활용 촉진을 목표로 함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연구를 도시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초기 경력 과학자들이 미래를 구축하도록 돕고, 아이디어를 실제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등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모두 중요하다. 시민과 과학을 연결하고 연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이 일상의 일부가 되는 유럽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언급
- 유럽 내 도시를 과학 허브로 전환하여 시민과 과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에 600만 유로 지원
 - 브레스트(프랑스), 킬(독일), 스플리트(크로아티아) 등 유럽의 3개 도시가 선정되어 2026년에 과학 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
 - 이 이니셔티브는 도시 공간을 대화형 과학 허브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과학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전시, 토론, 체험 활동 및 연구자와 시민 간 대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 경진대회 등 행사로 과학 경력을 장려할 예정
- 초기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데 2,000만 유로를 지원
 - 초기 경력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학계, 산업계 및 기타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나은 경력 기회를 제공할 것

-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를 산업 및 사회적 요구와 연계한 인력 생태계 구축, 녹색 에너지, 디지털 기술 및 딥테크 등 핵심 분야 지원, 연구 이동성 및 기술 개발 강화 등이 있음
- 연구 결과를 실질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혜택으로 전환하는 데 300만 유로를 지원
 - 연구가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럽단일연구공간의 핵심 목표이며, 이 이니셔티브는 과학적 지식의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
 - 연구 결과의 기업, 정책입안자 및 지역사회 활용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기관, 중소기업, 산업계 간 협력을 통해 연구 결과의 활용 모델 실험을 지원할 예정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urope-expands-public-science-engagement-and-research-careers-eu29-million-2025-02-18_en

5 집행위, 과학 외교를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발표(2.13)

- 집행위원회는 '과학 외교를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표
 - 130명의 과학자, 외교관, 기타 과학 외교 전문가들이 미래 유럽 과학 외교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고안을 제작. 이는 유럽 이사회와 연구장관들의 유럽 과학 외교 의제 수립 및 프레임워크 마련 요청에 따른 것
 - 보고서는 유럽 과학 외교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임무, 목표와 가치를 설명하며, EU가 기존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더 나은 조정 및 시너지를 파악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더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전략, 운영, 지원 수단,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제안을 포함
 - 전문가들은 과학 외교 전략 수립, 운영 체계 구축,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 등 세 가지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uropean-framework-science-diplomacy-2025-02-13_en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1 MSCA COFUND 2024, 27개 박사 과정 및 포닥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1억 480만 유로(2.14)

- 집행위는 MSCA COFUND 2024 공고 결과를 발표, 12개 박사 과정 및 15개 포닥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공동 자금을 지원할 예정
 - 기관들은 MSCA COFUND를 통해 자체 박사 과정 및 포닥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개선하여 연구자를 모집하고 국제적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음
 - MSCA COFUND의 지원을 받는 기관은 자체 자금원으로 자금을 보충해야 함
- 유럽연구집행청(REA)은 해당 공고에 81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그중 78건이 적격 조건을 충족하여 평가 대상이 됨
 - 27건의 프로젝트가 선정됨에 따라 성공률은 35%를 기록
- 이러함 협력 프로그램은 총 36개국의 463개 이상의 기관의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시행됨
 - 스페인 참여 기관이 97개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53개), 독일(37개), 체코(28개), 핀란드(26개), 스웨덴(25개), 벨기에(18개), 네덜란드(17개), 덴마크(13개), 영국(13개), 포르투갈(11개) 등이 뒤를 이음
 - 제3국 중에서는 스위스, 캐나다, 브라질, 호주, 칠레, 일본, 에콰도르, 중국, 케냐,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등이 참여
- 현재 2025년도 MSCA COFUND 공고가 게시되었으며, 6월 25일 마감될 예정

출처 <https://marie-sklodowska-curie-actions.ec.europa.eu/news/msca-cofund-2024-results>

2] 집행위, 유럽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인프라 전략 발표(2.14)

-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술 인프라를 통한 혁신 격차 해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집행위는 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술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기술 인프라 전문가 그룹(EGTI)에서 작성한 동 보고서는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하는 범유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곧 발표될 연구 및 기술 인프라에 대한 유럽 전략에 반영될 예정
 - 기술 인프라는 신기술을 테스트, 확장, 검증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 (테스트베드, 데모 및 테스트 시설, 파일럿 라인, 리빙랩 등)을 기업에 제공하여 유럽의 혁신 환경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러나 유럽의 단편적인 자금 지원과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EU는 접근성, 단편화, 투자 조정 문제를 해결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정책 의제에 따라 기술 인프라에 대한 조정된 접근 방식을 수립 중임
 - 연구 및 기술 인프라에 대한 유럽 전략은 기술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보고서는 최근 연구, 이해관계자 협의, 기술 인프라 사용자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기술 인프라의 개발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적 권고사항을 제시
 - 기술 인프라의 정의를 정립하여 EU 전체에서 명확하고 통일된 접근 방식 보장
 - 절차 간소화와 자금 지원 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의 기술 인프라 접근성 향상
 - 유럽의 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우선 순위 메커니즘 수립

- 유럽, 국가, 지역 이니셔티브를 조정하는 EU 차원의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 EU 및 국가 차원에서 기술 인프라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전용 자금 지원 프로그램 구축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bridging-innovation-gap-european-technology-infrastructures-2025-02-14_en

③ 직장 내 로봇 및 AI의 활용에 대한 유럽의 긍정적 인식(2.13)

- 최근 Eurobarometer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인 대부분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자신의 직업, 경제, 사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인의 62%는 직장에서 로봇과 AI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70%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유럽인 대다수가 직장에서 로봇과 AI를 사용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지하지만, 84%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직장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 67%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
 - 또한 대부분이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82%) 및 HR 의사결정을 위한 디지털 기술 사용의 투명성 강화(75%) 등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디지털 기술과 AI를 직장에 통합하여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EU의 경쟁력 나침반의 주요 목표 중 하나에 부합
 - 사람·스킬·준비 담당 부 집행위원장 민자투는 “인공지능은 현대 직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근로자를 돕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노동 시장 전반에 걸친 GDPR, AI법, 디지털 플랫폼 지침 등의 적용을 살펴볼 것을 언급

출처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survey-shows-most-europeans-support-use-artificial-intelligence-workplace>

4 EU 공동연구센터(JRC), 유럽의 미래를 위한 221개의 신기술 제시[2.17]

- JRC의 최신 기술 보고서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신기술을 분석,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을 제시
 - JRC의 Weak Signals in Science and Technologies - 2024 보고서의 목적은 신기술의 최신 개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
 - 동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221개의 신기술을 살펴보고 이를 전자 건강에서 항공우주에 이르기까지 12개의 주제 클러스터로 분류
 - 발견된 신기술 중 다수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과 관련이 있으며, 의료, 금융, 운송과 같은 분야에 응용됨
 - 동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이 산업을 혁신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
- 과학 연구와 관련하여 JRC 보고서는 유럽이 221개의 신기술 관련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유럽은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치료 및 생명 공학, 에너지, 환경 및 농업 클러스터에서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 기관은 과학 출판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 과학 논문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유럽이 과학 출판물 측면에서 탁월한 반면, 미국과 중국이 특히 측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연구에서 신기술의 대부분 클러스터에서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줌
- 보고서는 또한 국제 협력과 지식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
 -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은 특히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분산된 R&D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임
 - 특히, EU는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경쟁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출처

https://joint-research-centre.ec.europa.eu/jrc-news-and-updates/221-emerging-technologies-could-shape-europes-future-2025-02-17_en

5 MSCA PF 2024, 지원자 2,939명에 우수성 인증[Seal of Excellence] 수여[2.17]

- 집행위원회는 MSCA PF 2024 공고에 따라 우수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2,939명의 지원자에게 MSCA 우수성 인증을 수여
 - MSCA 우수성 인증은 MSCA PF 및 MSCA Cofund 사업에 따라 평가에서 85%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에게 수여됨
 - 해당 인증을 통해 신청자는 다른 대체 기금을 모색할 수 있음
 - 우수성 인증은 포괄적이고 철저한 평가 절차를 통해 인정된 연구 프로젝트의 뛰어난 가치를 보장하므로, 다른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2025년도 현재 18개 유럽 국가가 다양한 수준에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과 크로아티아 정부가 최근의 자금 지원 제도를 개시

출처

<https://marie-sklodowska-curie-actions.ec.europa.eu/news/msca-seal-of-excellence-awarded-to-2939-outstanding-postdoctoral-researchers>

6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MSCA 우수성 인증 제도 개시(2.17)

-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은 MSCA 우수성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를 최대 7개까지 지원할 예정, 공모는 6월 30일에 마감됨
 - 해당 이니셔티브는 브르타뉴 연구자가 MSCA PF에 지원하도록 장려하며 제안서가 MSCA PF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브르타뉴 지방의 Bienvenue 우수성 인증 제도는 12~24개월 동안 브르타뉴에서 시행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
 - 이러한 계획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에서 자금을 통해 지원되는 등 결속 기금과의 시너지 효과의 한 예시를 보여줌
 - Seal of Excellence 지원 계획은 이전에 체코,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및 다른 프랑스 지역에서 ERDF의 자금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립된 바 있음
 -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프로젝트 총 비용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ERDF 보조금의 형태를 띠며, 최대 한도는 11만 5,000 유로 임

※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원문 참조

출처

<https://marie-sklodowska-curie-actions.ec.europa.eu/news/new-msca-seal-of-excellence-scheme-kicks-off-in-france>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EU 연구 기관 내 젠더 기반 폭력 문제 해결

- EU 지원 UniSAFE 프로젝트는 학계에서 여성, 남성 및 기타 성별자 등 모든 성별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해결하고자 함
 - EU 기본권 기구에 따르면 젠더기반 폭력은 약 30%의 유럽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널리 퍼져있음
 - 특히, 위계적 구조가 권력 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 만연해 있음
 - 연구 기관에서 젠더 기반 폭력(GBV)이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암시하는 선행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했음
 - UniSAFE의 과학 코디네이터인 Sofia Strid는 "학계는 그저 다른 직장이지 아니다. 나이, 성별 및 기타 불평등에 따라 구조화된 권력과 권위, 위계 질서의 온상이다. 우리는 고등 교육에서 젠더기반폭력(GBV)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다."고 지적
 - 최근 유럽 정책 수준에서 학계에서 GBV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지식과 인프라의 부재는 이러한 폭력을 완전히 예방, 보호 또는 기소하는 것을 어렵게 함
- UniSAFE 프로젝트는 젠더기반폭력(GBV)의 맥락을 이해하고, 확산과 영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우리의 목표는 고등 교육에서 GBV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연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운영 도구와 권장 사항으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Strid, Örebro University, 젠더 연구 부교수)

- UniSAFE는 광범위한 연구 인터뷰와 사례 연구를 포함하여 15개국을 대상으로 전례없는 설문조사를 실시
 - 응답자 42,000명 중 62%가 학업 또는 연구 환경에서 어떤 형태의 GBV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지금까지는 많은 초점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춰져 왔지만, 이 조사에서는 남성과 기타 성별자 개개인들에 대한 폭력도 다루었음
 - "발생률이 충격적으로 높은데, 기타 성별자, 소수 민족,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더욱 높다. 반면 신고율은 낮다. GBV를 경험한 응답자의 12.5%만이 신고를 했다." (Strid)
 - EU 회원국에 제도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 충분한 법적 또는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있는지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도 제기됨
 - 정책 개입은 필수적이지만, 그 효과는 모든 수준에서의 실행에 달려 있음
- UniSAFE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제도적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었음
 - GBV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있었으나, 그 인식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는 종종 장벽이 있었음
 - 이 프로젝트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하였음
 - 연구 수행 기관(RPO) 내에서 이러한 지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은 진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RPO와 교류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공유되고 집단적인 책임감이 확립됨
 - "우리는 RPO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싶었다. 15개국의 46개 RPO가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우리는 정책 매핑, 사례 연구 및 9개 워크숍에서 RPO와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도구와 권장 사항으로 전환했다." (Strid)
- 3년 동안 UniSAFE는 전체적인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RPO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폭력 형태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와 GBV에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인 툴킷을 제공
 - 이 모델은 '7P'(발생, 예방, 보호, 기소, 파트너십, 서비스 제공 및 정책)를 기반으로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또한 33개국의 국가 정책과 법적 구조를 매핑하는 데 사용됨

- 그 후 프로젝트의 결과는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 맞춤형 도구 및 교육으로 전환되어 이해관계자가 GBV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
- "많은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모든 기관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평가 프레임워크와 도구다. 이 툴킷은 또한 GBV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 행동 계획 및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Strid)
- **UniSAFE의 결과는 EU 정책 입안자와 국가 당국이 참석한 행사에서 선보여짐**
 - EU 이사회의 스페인과 체코 의장국이 주최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컨퍼런스에서 툴킷이 발표되었으며, 프로젝트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모아 결과를 선보인 마지막 UniSAFE 회의도 개최됨
 - 공동의 노력과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 UniSAFE는 유럽 전역에서 GBV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선례를 제공하였음

UniSAFE 프로젝트

- 기간 : 2021.02.01.~2024.01.31.
- 예산 : 약 3,198,540 유로 (EU 100% 지원)
- 주관 : FONDATION EUROPEENNE DE LA SCIENCE (프랑스)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tackling-gender-based-violence-eu-research-institutions>

② HaDEA, MWC 2025에서 성공 사례 제시 및 펀딩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 유럽보건및디지털집행청(HaDEA)는 3월 3일~6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5를 준비하고 있음
 - 모바일 통신 산업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벤트인 MWC는 10만 개 이상의 기업, 정부 대표, 투자자, 스타트업들이 모여 컨퍼런스, 워크숍 및 전시회를 개최
 - 6홀 6G8 부스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가 자금 조달 기회에 대한 문의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하며 모바일 산업을 지원하는 EU 프로그램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계획
 - 또한, 이는 여러 EU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미래 협업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관련 Horizon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Mobius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가치 사슬과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여 유럽 도서 출판 산업을 현대화해 왔으며, 3D 오디오 및 바이노럴 재생과 같이 새로운 몰입형 대화형 도서 경험을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하여 독서 경험을 개선하였음
 - 5G-TIMBER 프로젝트는 목재 제조 및 건설 부문의 친환경 및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5G 지원 사용 사례(UC)를 개발하고 있으며, 목표는 중소기업 최종 사용자가 워크플로를 최적화하고, 낭비를 줄이고, 안전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체 목재 가치 사슬을 강화하는 것에 있음
 - AC3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연속체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첩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확장성, 민첩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리소스 부족, 데이터 폭주 또는 데이터 소스 이동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컨텍스트 및 이벤트에 적응할 수 있음

- COGNIT는 엣지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스마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새로운 분산 기능 서비스(FaaS, Function-as-a-Service)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음. 이 AI 기반 적응형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엣지 연속체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저지연 기능을 추상화하는 지속적인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한 안전하고 휴대 가능한 액세스를 제공
- Vitamin-Vis는 특히 유럽 프로세서 이니셔티브 코어에 초점을 맞춘 RISC-V 코어를 위한 혁신적인 클라우드 오픈 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완전한 RISC-V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스택을 배포,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RISC-V 가상 실행 환경을 통합
- Zero-SWARM은 유럽 제조 부문에서 첨단 5G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학제적, 인간 중심적, 목표 지향적 혁신적 접근 방식을 통해 기후 중립적이고 디지털화된 생산을 달성하여 개방형 스웸 프레임워크, 비공개 5G 네트워크, 활성 정보 연속체 및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

출처

https://hadea.ec.europa.eu/news/hadea-showcase-success-stories-and-provide-insights-funding-opportunities-mwc2025-2025-02-13_en